

발견되어 江華島의 禪源寺란 것이 밝혀진 것은 例도 있다. ② 이 寺刹은 東國輿地勝覽 ③ 에 벌써 廢寺로 記錄되어 있고 그때 벌써 掌苑署의 果苑으로 되었다고 하였으니 李朝初期에 廢寺되었을 것이다.

「佛前于」라 한 것을 보면 처마에 매달던 것이 아니라 佛像앞에 달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施主 三韓國大夫人 李氏」는 恭愍王 및 禑王 때의 判司事를 지냈던 鐵城府院君 李琳의 母 李氏라 생각된다. 琳의 딸이 禑王의 謹妃가 되어 琳의 母도 三韓國大夫人이 되었던 것이다. ④ 高麗代를 通하여 三韓國大夫人으로 책봉된 이는 李氏밖에 보이지 않고 姓氏나 年代도 꼭 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琳好佛」이라 하여 그의 집안 모두가 佛敎를 깊이 믿었다고 한 것을 보면 李氏가 禪源寺에 玉燈을 施主했으니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⑤

實測值..高七cm 口徑一四·八cm

註

- ① 傳燈本末寺誌 江華各寺 古代廢寺條
- ② 黃壽永·「在銘銀入絲佛器」(考古美術一卷一號)
- ③ 東國輿地勝覽 江華 古跡條
- ④ 高麗史 列傳 卷二十九
- ⑤ 이 禪燈은 忠淸北道 어느 寺刹에 傳來되어 오다가 金義正氏에 의 하여 一九六七年 東國大博物館에 기증된 것이다.

南原 大福庵과 佳仁寺址의 石佛

金 鍾 太

一九六七年十一月十日에 南原 大福庵을 一次踏查하여 石燈下臺石 塔材 鐵佛 等を 調査하고 그後今年一月三日에 新羅五岳 智異山 第四次踏查時에 「崇禎八年 全羅道 泰仁縣 東面 淸龍山?原寺 大鍾」銘을 調査하고 다음一月三十一日 住持 鄭智元 스님의 好意로 石造如來像二 軀를 調査하였으며 오는 길에 大福庵 東一km지점 佳仁寺址에서 石造如

來像 一軀를 더 發見하였다.

大福庵은 本來 大谷寺로 부른 것 같다. 南原龍城誌의 己廢現存寺刹沿 革大谷寺條에(南原龍城誌 佛宇 卷之四)「寺在府北三里 今大福庵 只有鐵 佛唐傳宗景福二年 新羅眞聖女王六年 癸丑初朔」으로 記錄되어 있고 佛敎 辭典에 「西紀 八九一年 新羅 眞興王 七年」이라 하였고 大福庵 入口沿 革에는 八九三年 新羅 眞聖女王 七年 道詵國師의 創建으로 되어 있는데 이 記錄은 景福二年 眞聖女王 七年 癸丑과 일치된다. 여하간 大福庵이 新羅末 寺刹임은 現存하는 石佛 鐵佛 塔材 石燈下臺石 等으로 알 수 있다. 大福庵은 東國輿地勝覽에 記錄이 丁卯再亂時에 南原市內의 寺刹들 이 불타다는 記錄으로 보아 (南原邑誌六 우리고장年表 參照) 宣祖를 넘어서까지 存在했는지는 疑問이다. 大福庵이라는 이유는 南原 富家 姜大福이 李朝 肅宗 때에 重創하였기 때문이라는 바 現存建物은 一九一四年 에 세워진 것이다. (住持傳說談話)

佳仁寺는 大福寺 東一km되는 곳 現在 南原邑 鄉校里 龍井部落이 그 遺址인데 龍城誌에 「寺在大谷寺傍 只有石佛今廢」라고 記錄되어 寺址를 밝히고 있는데 殘存遺物로 보아 羅末麗初임은 틀림 없다.

(1) 大福庵

① 石佛坐像(I)

大福庵 後 一〇〇
m 自然的인 절벽 밑
에 直徑 三·五m 幅
一·五四m의 경사진
반석 위에 自然石座
臺를 놓고 南向安置
하였는데 本來는 蓮
花石 座臺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結
跏趺坐하였고 素髮
의 頭頂에 肉髻가 있



고 白臺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右肩偏袒, 手印은 右手를 內掌하여 右膝 위에 가법계 놓았으며, 左手는 掌을 위로 하여 降魔印하였다. 頭光엔 蓮瓣, 身光엔 火燄의 흔적이 보이는데 左右側에 多少 破損이 있다. 이런 樣式의 坐佛이 隣近 朱川面 新村里 塔上골(考古美術 八卷 第二號)「南原 新村里의 石佛座像과 塔村」鄭永鎬)에 一軀가 遺存하는데 頭光의 蓮瓣 手印 衣褶等 彫刻手法이 같다. 年代는 羅末 내지 麗初로 推定된다.

全高 七〇cm 座臺高 一〇cm 膝高 一一cm 膝幅 四〇cm 胸幅 一六cm 肩幅 二八cm 頭高 二〇cm 頭光幅 二五cm 身光幅 四二cm

② 如來像(Ⅱ)

이 如來像은 本來 大福庵 前 田에서 다른 土造 手印과 함께 出土되었는데 全北大學校 博物館에 保管中이다. 조그마한 이 佛像은 花崗石 石質의 속돌類인데 下部에 座臺를 表示하여 蓮瓣의 흔적이 보이며 結跏趺 座하였다. 頭頂과 相好에 磨滅이 甚하여 兩耳만 若干 分別할 수 있다. 右肩偏袒한 法衣는 腹部에서 半圓을 그리며 흘러 내렸고 右足이 左膝에 서 보인다. 手印은 右手를 內掌하여 右膝에 가법계 놓고 左手는 降魔印 하였다.

全高 一九cm 座臺高 五cm 膝高 三·五cm 膝幅 一一·五cm 胸幅 五·五cm 肩幅 八·五cm 頭高 四cm 光背幅 一一cm

(2) 佳仁寺址 如來像

龍井部落 우물 右便 골목길 옆에 放置되어 있다. 龍城誌에도 「只有石佛」이라 記錄했다. 復葉 蓮瓣의 座臺를 倒置하여 佛像을 놓았으나 後部에 破壞가 甚하다. 結跏趺坐하였으며 手印은 降魔印 法衣는 右肩偏袒背에도 流麗한 衣褶이 表示되어 있다. 頭部가 缺失되었으나 三道의 表示는 보인다. 이 佳仁寺址에는 石燈下臺石 龜趺塔村 등이 있어 모두 調査되었으나 이 如來像만 누락되어 있다.

全高 九八cm 座臺高 二五cm 膝幅 七〇cm 膝高 一六cm 胸幅 二七cm 肩幅 五四cm

〈後記〉

南原은 智異山 西麓에 位置하면서 佛教 全盛期인 新羅 高麗의 佛像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까지 調査된 것으로 鐵佛 三個 磨崖佛 十一個 石造佛像 十三個인데 그 중 大福庵과 佳仁寺址 如來像과 同時代로 推定된 佛像은 鐵佛 三個와 朱川面 新村里 石佛坐像 女院峙(考古美術 第五卷 第十一號)「南原 女院峙의 磨崖如來像」秦弘燮) 磨崖佛, 朱川面 虛成里 磨崖佛, 大山面 新期里 磨崖佛(考古美術 第三卷 第十二號)「南原郡 大山面 石造如來立像」申榮勳)등인데 이들이 모두 羅末 麗初로 推定된다. 이 三軀의 如來像은 다른 石造遺物들이 同存함으로 時代 推定을 더욱 容易 하고 있다. 따라서 求禮 谷城을 包含한 이 地方 佛像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길 바란다.

考古美術 뉴 — 스

◎ 文化財委員會 第一分委 十四次會議

八月五日 上午一〇時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李弘植 分委員長 司會로 開催되었다. 出席委員은 金庠基 李弘植 金元龍 金允基 趙明基 崔淳雨 등이며 文化財管理局長과 文化財課長 등 關係官이 參席했다. 附議案件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보존장소 이전

寶物 第二三五號 莊義寺址 幢竿 支柱를 校舍新築에 따라 十五m 이전하는 案 一可決

2,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전화선 매설

보물 第二號 보신각 보호구역내 —— 可決

3, 문화재 해의반출

별지음 왕실박물관 진렬용 유물반출 —— 보류

4, 매장문화재 처리

연곡사 三층석탑 보수공사중 발견유물 —— 반환 후의 보존계획을 제출케 한 후 검토 재심할 것

5, 문화재 보수
전남 담양군 와요지에서 발견된 기와 —— 현지조사 후 처리할 것